

## [광운대학교 문항정보]

### 일반정보

|                      |                    |                           |
|----------------------|--------------------|---------------------------|
| 유형                   |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
| 전형명                  | 논술우수자 전형           |                           |
|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인문사회계열 / 1번        |                           |
| 출제 범위                | 교육과정 과목명           | 인문계열 (독서, 국어, 문학)         |
|                      | 핵심개념 및 용어          | 소유, 존재, 나, 너, 그것, 자기, 수오재 |
| 예상 소요 시간             | 60분 / 전체 120분      |                           |

### 문항 및 자료

[문제 1] ㉠으로 (나)의 아버지와 아들의 땅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을 (다)와 (라)의 관점을 대비시켜 설명한 다음, ㉢의 의미와 그에 대한 비판을 (다)와 (마)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내성 즉,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 보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내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국의 철학자 흄은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 보면 ‘나’가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하였고,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의식의 웅덩이 속에 들어 있는 ‘나’란 조약돌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즉 내성의 방법으로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 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마룟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 알 수 없고,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없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들여다 보아서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한 것도 다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버(Buber, Martin)는 자신의 저서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서 바뀌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삼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서 ‘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나)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채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이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으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삼분의 일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곡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옅한 것, 옅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은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년에 만 원 하나 켜는 이익을 뽐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다.”

<종락>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을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발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 흘려 모신 돈으루 작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 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는 독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가 땅이 뭔지도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보지 않드라.”

“.....”

“네가 뉘 덕으루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없이 뭘루? 밭에 가 절하구 논에 가 절해야 쓴다. 자로고 하늘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허지 않군 사람헌데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인과가 분명한 게 무어나?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틈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작인들헌데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얹어 소출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덴 단돈 일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농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냐? 독이 떠나가니 아냐? 거름 한 번을 제대로 넣냐? 정 급하게 돼 작인이 우는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의들 주사침 놓듯, 애꾸진 금비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홀대 허군 인재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테구!” 창섭은 입이 열어 버렸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다)

‘소유’와 ‘존재’간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하단 말인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아 왔다. 부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또 예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고 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 비어 있게 하는 것, 자기의 자아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소유와 존재를 깊이 연구하였고,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그 구분의 토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소유와 존재는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이며, 그것이 개인적인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매달림으로써 안정감을 찾는다.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우리는 유아기일 때 자기 육체와 어머니의 품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점차로 우리는 세계를 향해 우리 자신을 서게 하고 세계 속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한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장난감을 ‘갖게’되고, 그 후에 지식, 직업, 사회적 지위, 배우자, 자녀들을 ‘갖게’되며, 좀 더 지나면 내생이라고 할만 한 것, 즉, 매장지, 생명 보험, 유언 같은 것까지 ‘소유’하게 된다.

조심성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들은 돈, 명성, 그들의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지위, 친구 등도 마찬가지다. 또한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며, 조만간 잃도록 되어 있다.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라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일 것인가? 그릇된 삶의 방식에서 패배한, 김빠진, 슬픈 증거물 외에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하게 된다.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쳐 만성 우울증으로 고통 받게 된다. 더 잘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진다.

그러나 ㉔ 존재 양식의 삶에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나의 존재 능력, 나의 기본적인 힘의 발현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나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 해당하며,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병이나 고문, 그 밖의 강력한 외부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 이성의 힘, 사랑의 힘, 예술적 지적 창조의 힘 등 모든 기본적인 힘은 발현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쓰이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보관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지위 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로 본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더 나빠지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이다. 만

일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고 이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사람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때 사람은 자기를 고양하여 앞서 경험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려 하는데, 이 경우 비교적 쉽게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물질 자기이다. 물질 자기는 소유물로 스스로를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소유물이란 자신의 신체, 의상, 가족, 집 등 자신이 가진 물리적인 모든 것을 일컫는다. 이같이 자신을 빛나게 해 주는 물건을 소유하면 자신의 물질 자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사회적 자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 결국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인 자아 존중감은 상승한다. 그런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외부에 보여 주어야 한다. 즉 과시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마)

수오재(守吳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내 발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발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 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 가서 없애 버릴 수 있겠는가?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한들 불과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양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나’보다 없다. 그러니 뽕뽕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 출제 의도

- 치열한 생존 경쟁과 물질주의가 팽배한 현대의 삶에서 참된 ‘나’를 이해하고 나의 존재와 소유의 의미를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와 목표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일 것이다. 여기에는 ‘나’의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를 다양한 인문학적,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존재를 아는 것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다른 대상, 즉 소유물과의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존재자로서 ‘나’의 내재적이고 내면적인 본질은 존재자로서 ‘너’와의 관계에서 이해되고 발현될 수 있다. 또한 ‘나’는 내가 가진 소유물인 ‘그것’과의 관계에서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유물로 나를 표현하고 소유물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나’는 자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방면이다. 우리는 ‘나’의 참된 의미란 무엇인가, 소유와 존재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본 문제는 고등학교 독서, 국어,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나’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관점, 존재와 소유의 대비, 나의 삶의 가치와 본질을 실천하기 위한 삶의 자세에 관한 글을 읽고 ‘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제했다.

## 출제 근거

### 1. 교육과정 근거

| 적용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                    |
|---------|---------------------------------------|--------------------------------------------------------------------------------------------------|--------------------|
| 관련 성취기준 | 1. 국어과 교육과정                           |                                                                                                  |                    |
|         | 과목명: 독서                               |                                                                                                  | 관련                 |
|         | 성취<br>기준<br>1                         |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제시문<br>(가),<br>(라) |
|         |                                       |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
|         |                                       |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                    |
|         | 과목명: 국어                               |                                                                                                  | 관련                 |
|         | 성취                                    | [10국03-0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 제시문                |

|  |         |                                                                             |            |
|--|---------|-----------------------------------------------------------------------------|------------|
|  | 기준 1    | 글을 쓴다.<br>[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 (나)<br>(다) |
|  | 과목명: 문학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 제시문 (마)    |

## 2. 자료 출처

| 교과서 내   |           |         |      |                  |             |        |
|---------|-----------|---------|------|------------------|-------------|--------|
| 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년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고등학교 독서 | 한철우 외 6인  | 비상교육    | 2018 | 102-107          | 제시문 (가)     | X      |
| 고등학교 국어 | 민현식 외 12인 | 좋은책 신사고 | 2018 | 108-117, 372-377 | 제시문 (나),(다) | O      |
| 고등학교 독서 | 서혁 외 5인   | 좋은책 신사고 | 2018 | 30-32            | 제시문 (라)     | X      |
| 고등학교 문학 | 최원식 외 13인 | 창비      | 2018 | 278-279          | 제시문 (마)     | X      |

## 문항 해설

- 본 문제의 취지는 ㉠에서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의 의미를 (나)의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작품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의 땅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다)의 에리히 프롬의 ‘소유나 존재냐’에서 발췌한 제시문에서 ㉡의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에리히 프롬 자신의 부정적인 관점과 (라)에서 소유물을 자기 존재의 일부로 지각하는 물질 자기와 소유물로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기를 통해, 소유물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대조하여 서술한 후, 존재 양식의 삶에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는 ㉢의 의미를 (다)에서 ‘존재’에 대한 에리히 프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마)의 ‘수오재기’란 글을 바탕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약용의 비판적 입장에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제시문 (가)는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철학 교육자의 글로 ‘나’를 알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나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에서 말하고 있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주장하며, 이 두 관계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작품으로 병원 확장을 위해 아버지의 땅을 팔 것을 요구하며 아버지를 설득하는 아들과 평생을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는 땅과 고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아들과 대립하는 아버지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다)는 에리히 프롬의 ‘소유나 존재냐’에서 발췌한 것으로 소유와 존재간의 선택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소유와 존재의 삶의 두 양식을 대비시켜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자아 존중감의 의미와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물질 자기와 사회적 자기와 소유물에 대한 관계를 서술한 심리학자의 글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마)는 정약용의 ‘수오재’란 수필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정약용은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수오재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능력, 각각 제시문 (가)와 (나), 제시문 (다)와 (라)의 핵심 내용을 관련짓는 능력, 제시문 (다)와 (마)의 내용을 활용하여 ‘나’의 참된 의미란 무엇인가, 소유와 존재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의 논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 채점 기준

| 하위<br>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p>★ 아래 ①~⑤의 각 항목당 최대 10점씩, 합계 50점.</p> <p>① ㉠에 대해 제시문 (나)의 아버지와 아들의 땅에 대한 인식을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지와 땅의 관계를 ‘나’와 ‘너’로, 아들과 땅의 관계를 ‘나’와 ‘그것’으로 연결하여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함.</li> <li>-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li> <li>- <b>Key words:</b> 나와 너, 나와 그것, 아버지, 아들, 땅</li> </ul> <p>② ㉡에 대해 (다)와 (라)의 소유에 대한 관점을 대비시켜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는 소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서술해야 함.</li> <li>- 아래의 핵심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함.</li> <li>-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li> <li>- <b>Key words:</b> 소유, 걱정, 두려움, 의심, 외로움, 자아 존중감, 물질 자기, 사회적 자기</li> </ul> <p>③ ㉢에 대해 (다)와 (마)의 존재에 대한 관점을 대비시켜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에서 ㉢의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li> <li>- (마)에서 ㉢에 대한 비판을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li> <li>- 모범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li> <li>- <b>Key words:</b> 존재, 힘, 성장, 잃어버림, 나, 지킴</li> </ul> <p>④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10점</p> <p>⑤ 총 글자 수 600-700자는 5점 감점</p> <p>⑥ 총 글자 수 500-600자는 10점 감점</p> <p>⑦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최대 20점 이하 점수 부여</p> <p>⑧ 총 글자 수 800자 초과는 5점 감점</p> |    |

## 예시 답안

(나)에서 아들은 땅은 실리가 적지만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면 이익이 크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땅을 ㉠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인식하며 ‘그것’인 땅은 ‘나’의 소유의 일부일 뿐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다른 이의 소유가 될 수 있어 이 관계가 유한하다고 본다. 아버지는 조상들을 대하듯 땅을 경건하게 대하며 조상과 땅과의 인연을 인식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버지는 땅을 자신과 인격적 관계를 가진 조상인 ‘너’라고 생각하며 땅을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본다.

㉡에 대해 (다)에서는 우리가 소유물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고통받을 뿐 아니라 소유물을 보호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의심과 방어적인 자세와 외로움에 빠진다고 본다. 반면에 (라)는 자신이 가진 소유물로 스스로를 고양시키는 물질 자기와 소유물로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기를 통해 자존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에서 ‘나’는 안정성과 주체성을 가지며 나의 기본적인 힘은 내 자신 안에 있고, 내 존재에 근거하고 있다. 힘의 실천은 소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힘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존재의 성장이 이루어지므로 소유를 잃을지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그러나 (마)에서는 소유물은 언제든지 다시 소유할 수 있고 모든 소유물을 다 없애지 못하므로 소유물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꼭 지켜야 할 것은 ‘나’라고 주장하며 ‘나’라는 성품은 배반, 물질적 이익, 위험과 재앙, 쾌락과 유혹에 언제든지 잃어버린 바 될 수 있으므로 늘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797자)